

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. - 보살행이 참다운 정치입니다 -

“보살은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

모든 중생에게 공양하는 일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ियो

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.

왜냐하면 부처님은 연민과 자애로 마음의 바탕을 삼으시기 때문이다 “

화엄경 보현행원품 한구절의 글공양으로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.

종교는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여 뜻 생명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 헌신합니다. 정치는 정의와 애민의 마음으로 좋은 정책을 실천하여, 자유·평등·평화의 공동선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합니다.

그러므로 종교와 정치는 국민을 행복과 평화의 길로 모시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. 불교는 국민대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인류가 상생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겠습니다. 국민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국민중생의 삶의 현장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대자대비의 정치보살은 늘 자신을 성찰하고 성숙하는 수행에 게으르지 않습니다.

**“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 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곧게 한다
목수는 재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“**

늘 초발심의 서원을 새기면서, 관세음보살의 보살행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 주십시오. 저희 불교도들이 정성으로 기원하겠습니다.

불기 2556년 4월 12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